

한국대댐회 창립 40주년을 축하하며



고현무
대한토목학회 회장

1972년 한국대댐회가 창립된 이후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4번이나 지났습니다.

지난 40년간 한국대댐회 역대임원 및 회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명실상부한 해당분야의 최고 회로 부상하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.

본인은 전공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댐에 대하여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칠팔십년대의 국토개발시기에 있어서 수자원의 역할이 실로 컸으며, 이러한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조물이 댐이며, 그 동안 대댐회는 우리나라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한 각종 조사, 계획, 설계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국토개발과 산업발전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던 토목공학이 요즘 사회적으로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 사실이며, 이것은 우리

역시 일정부분 반성해야 할 것도 있지만 또한 사회,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세워지는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토목기술인으로서 반성과 극복의 의지를 다지지는 않을 수 없습니다. 더욱이 댐분야 역시 환경과 대책점에 있는 대표적인 구조물로 인식되면서 일부 국민과 여론의 비판의 표적이 되었던 것이 사실 이므로 향후 대댐회의 역할과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한국대댐회가 국내 댐기술의 발전과 연구 분야에 있어 학계 및 실무 업계에 그 길잡이가 될 것이며, 아울러 국가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.

다시 한번 한국대댐회의 40주년을 축하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.